

거리로 나선 작가들 “윤석열 파면이 문학이다”

광주전남작가회의 릴레이 농성 5·18민주광장서 13일까지
목포·순천·여수 작가회의 동참
“피로 세운 민주주의 후퇴” 선언문

‘원고지를 떠난 작가들이 천막에서 온몸으로 글을 쓰다’
작업실에서 작품 창작을 하고 있을 작가들이 광장에 나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

광주전남작가회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천막 농성은 오는 4월 13일까지 펼쳐지며 목포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 여수작가회의 등 지역 작가 회의도 참여한다.

기자는 31일 오전 천막농성장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을 찾았다.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찬바람이 부는 농성장은 파면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결의에 찬 모습으로 뜨거웠다. 김미승 회장을 비롯해 백애송 시인, 한경숙 시인 등 집행부와 채희운, 조진태 전 회장 등 문단의 중견 작가들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 조성국 시인, 김황률 시인, 안오일 시인 등 20여 명도 함께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작가선언문’에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정국은 얼어붙고 민생은 나몰라라, 동맹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피로 세운 민주주의는 50년을 후퇴했습니다”라며 “평온한 일상에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국민은 그날(지나해 12월 3일) 이후 밤잠을 설치고 스트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이 광주518민주광장에서 31일부터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레스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자력 미달인 자가 대통령이 되어 미숙한 판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작가들은 릴레이 단식과 철야농성으로 현재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작가들은 몸으로 글을 쓸 것입니다”라며 “이에 광주전남작가회의가 명령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정의다! 현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강조했다.

작가들의 이 같은 릴레이 농성과 작가선언은 공간적 관점에서 의미를 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광장은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된 곳이다.

천막 상단에는 짧지만 강렬한 ‘한줄 시국선언’

들이 부착돼 있다. “국민의 물결이 거센 물살을 만들고 그 물살이 방향을 만든다”, “속도가 정의다” 등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우려되는 극도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조진태 오월문예연구소장은 “암울한 시대 작가들의 예지로 뚫고 가겠다”고 밝혔으며, 채희운 소설가는 “윤석열 파면이 시이고 소설이고 문학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릴레이 농성은 작가들이 하루 4시간씩 농성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1일 오전 10시~오후 2시(조성국, 조진태, 채희운, 안오일)이, 31일 오후 2시~오후 6시(최현주, 안오일, 양인자, 김영미, 신남영)이, 오후 6시~밤 10시(임성규, 이송희, 임지인)이 각각 참여했다.

1일 오전 10시~오후 2시(나종영, 전용호, 조성규, 김만성, 함진원)이, 오후 2시~오후 6시(순천작가회의, 오후 2시~오후 6시(순천작가회의, 오후 2시~오후 6시(순천작가회의, 오후 2시~오후 6시(순천작가회의,

선종구, 성미영, 최미정, 김현주)가, 오후 6시~밤 10시(임수경, 한경숙, 박노식, 강희정, 이창수, 김완)이 참여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으로 작가선언에 동참한 시인도 있다. 김완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 앞에서 현재는 이념과 이익으로 보편적 민주주의의 희망을 가로막는 일을 이제 정갈 그만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작가회의는 지난달 25일 ‘전국 문학인 2487인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더 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이다”라며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세력에게 농간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업무 과실이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故 김새론과 교제했지만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야”

김수현 회견… ‘가세연’에 손해 소송

배우 김수현(사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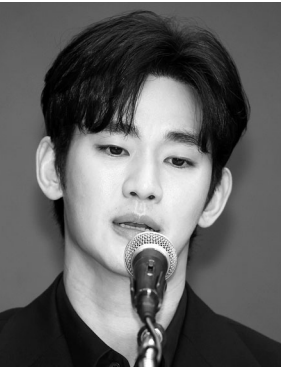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도 사건 폭로 후 새롭게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40분간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다.

그간 소속사에서 임장을 낸 적은 있지만, 김수현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봄향기 따라 가무악의 향연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2’ 5일부터 시작

‘판페라 이순신’부터 타악 앙상블 ‘락낙악(樂樂樂)’, ‘이매방류 승무’까지.. 다채로운 가무악 공연의 향연, ‘그린국악’ 시즌2가 막을 연다.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 공연들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울림터에서 펼쳐진다.

“나의 무대, 나의 그린국악(Draw my green stage)”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각 단원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담은 작품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타악 앙상블 ‘락낙악(樂樂樂)’과 3인 3색으로 펼쳐지는 ‘이매방류 승무’, 철현금 산조 병주 등 단원들이 직접 창작하거나 재구성한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5월 3일에는 ‘푸르른 오월, 꿈을 달다’를 주제로 어린이날 특집 공연이 진행된다. 어린이국악단 단원들과 어린이국악단 출신 청년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한 풍성한



그린국악 무대의 한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이벤트도 마련된다.

6월 14일에는 국공립 예술단체 교류공연 ‘국악이음’이 펼쳐진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3번째를 맞은 국악이음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김선욱)가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단 대표 브랜드 공연들도 펼쳐진다. 4월 26일에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제480주년을 기념해 ‘판페라 이순신’ 중 ‘악무호남 시무국가’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5월 17일에는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선보인다. /장혜원 기자 hey1@

인문학 모티브로 사회 문제 고민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4월 강좌…7일 서명원 교수 ‘몸·언어·철학’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의 4월 강좌(제 125기 정기 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오후 2시)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며 언어, 철학, 민주, 하루키 등을 모티브로 시민 참여형으로 펼쳐진다.

먼저 월요일(7일, 21일)에는 ‘몸·언어·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체현주의: 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수요일(9일, 30일) ‘민주시민교육’ 시간에는 신우진 책임연구원이 ‘민주주의와 이분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맑스 세미나’가 진행되는 목요일(3일, 24일)에는 위상복 교수가 ‘칼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하루키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다. 금요일(4일, 25일)에는 신광용 이사장이 ‘신작에세이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레코드2”를 모티브로 하루키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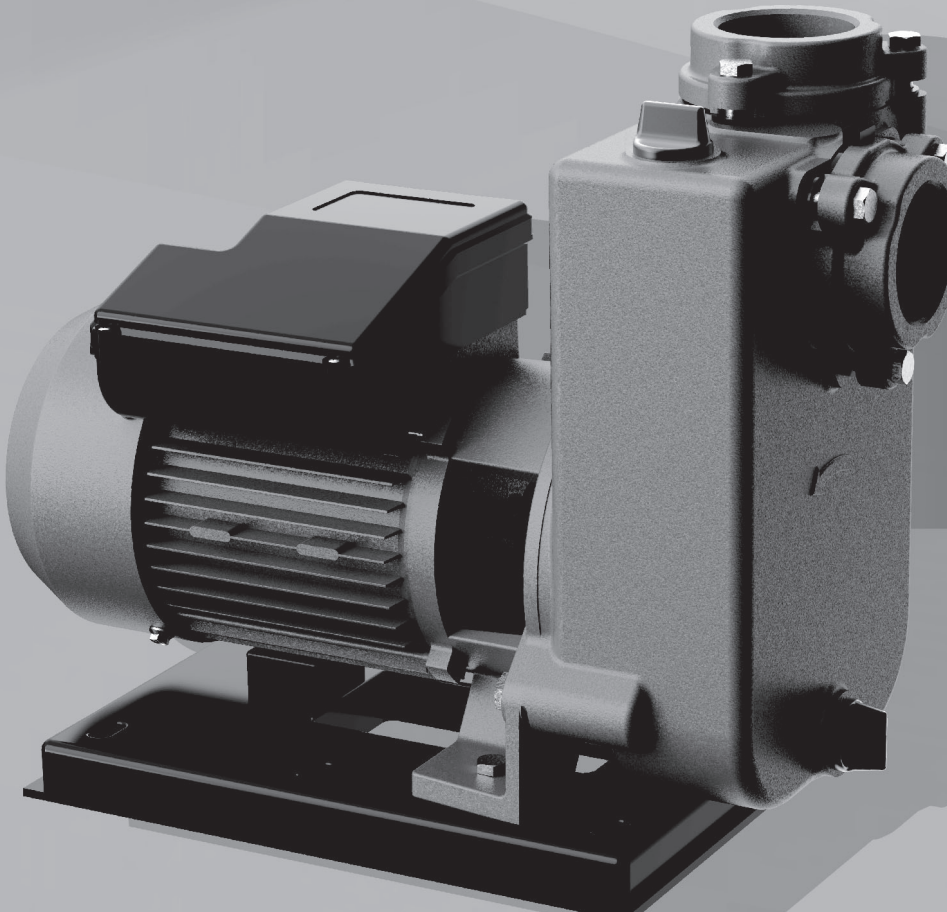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일요일 ‘인문학’은 진정한 이사 등이 ‘호남문화기행: 문학자들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치기 진행.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도 오후 7시 카페 노블에서 진행된다. ‘비평적 독서’, ‘독립영화 읽기’, ‘어프로치 일본’, ‘들뢰즈 철학’, ‘미술독서모임’, ‘에세이창작반’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신우진 이사장은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25기 강좌도 다채로운 인문학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며 “인문학을 모티브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비 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